

국제유가 회복에... 원유 ETP부터 정유·조선주 동반강세

13개월만에 WTI 선물 60달러 돌파
관련 ETP·ETN 상품도 고공행진

유가수급 불균형... 상승제한 주의
원유선물 ETP, 단기접근이 유효

국제유가가 이달부터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며 관련 상장지수상품(ETP)부터 유가에 민감한 기업 주식까지 덩달아 치솟고 있다. 다만 유가가 수급 불균형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만큼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원유 선물 ETP는 괴리율·복리효과·롤오버(만기연장)비용등 내재 위험이 커 철저히 단기 투자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1% (0.63달러) 오른 60.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6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13개월 만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낙폭을 회복했다. 배럴당 10달러까지 급락했던 지난해 4월보다 6배 가까이 급등했다.

◆유가 상승세에 ETP 모두 급등

유가 상승세는 관련 ETP에 그대로

〈국내 주요 원유 ETP 15일 상승률〉

(단위 : 원.%)

구분	상품명	현재가	상승률
ETF	KODEX WTI원유선물(H)	9090	4.18
ETF	TIGER 원유선물Enhanced(H)	2735	3.99
ETF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H)	3365	4.02
ETN	신한 WTI원유선물ETN(H)	4275	4.65
ETN	신한 브렌트원유선물ETN(H)	7369	4.10
ETN	대신 WTI원유선물ETN(H)	5650	3.72
ETN	신한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H)	595	9.17
ETN	QV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	575	8.49
ETN	삼성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	680	7.94

반영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 거래일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WTI원유선물(H)은 4.18% 오른 90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16.26% 올랐다.

이 외에 TIGER 원유선물Enhanced(H)도 이날만 3.99% 상승했다. 미국의 원유와 가스를 탐사·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합성 H)도 4.02% 오름세를 보였다. 국제유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TIGER 글로벌자원생산기업(합성 H)도 1.25% 올랐다.

상장지수증권(ETN)도 고공행진 중이다. 신한 WTI원유선물 ETN(H)은 전 거래일보다 4.65% 오른 4275원을 기록했으며 신한 브렌트원유선물 ETN

(H)과 대신 WTI원유선물ETN(H)도 각각 4.10%, 3.72%씩 상승했다.

레버리지 상품들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신한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H) 이날 9.17% 오른 595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QV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과 삼성 레버리지WTI원유선물ETN도 전 거래일보다 8.49%, 7.94%씩 올랐다. 세 상품 모두 '원유 대란'으로 불리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ETP 투기적 거래 주의보

금융투자업계에서 전망하는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는 45달러에서 60달러 사이다. 예상치만 놓고 보면 이미 고점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원유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투기적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소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유가 상승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OPEC+(OPEC 소속 13개국과 러시아 등 10개 주요 산유국 연합체) 감산에 따른 공급 통제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세가 이어지며 향후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개최되는 OPEC+의 장관회의급에서 4월 이후의 원유감산 정책이 정해질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입장 차이가 있어 OPEC+발 불확실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추세적 상승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도 "유가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OPEC+가 감산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진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친환경을 이유로 상반기엔 미국의 석유와 가스산업 성장이 억제돼 공급이 적어지며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 서도 "하반기엔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재개로 이란으로부터의 공급 확대 가능성이 크다. 유가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ETP보단 관련 기업 담아야"

전문가들은 원유 선물 ETP는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거래비용(롤오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단타'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추세적 상승을 예견해 긴 호흡에서 투자하길 원한다면 ETP보단 유가와 민감도가 큰 상장사를 담는 것이 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을 예측해 계속 ETP 상품을 사들인다면 괴리율과 역복리효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싶다면 원유관련 기업을 구매하라"고 했다.

실제로 정유주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소송에서 패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5일 4%대 내림세를 보였으나 경쟁 정유사인 에스오일은 7.26% 급등했다. 현대오일뱅크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와 GS칼텍스의 지주사 GS도 각각 3.20%, 2.96%씩 올랐다.

일부 건설주도 유가 상승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사의 플랜트 발주 기대를 해도 좋은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유가상승의 최우선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을 꼽았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합리적인 분양가에 다양한 특화설계 적용

분양 돋보기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인근 단지들보다 2억여원 저렴
2개층 '클럽 포레나' 시설 등 도입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로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한 새 아파트 찾기에 여념이 없다.

16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동안 전국의 집값은 3.3㎡당 평균 1441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약 18% 올랐다. 특히 경기도는 24%나 급등해 전국 시도 단위 지역 중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에 전국이 6%, 경기도가 10% 상승한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상승세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아파트가 나왔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 일대 옛 국제공무원교육원 터에 공급하는 '한화 포레나 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투시도.

원장안'이 주인공이다.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843만원선이다. 84㎡타입의 분양가는 5억5000만~6억1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인근 단지들보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이 2억여원 가량 저렴하다.

송희용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포레나 수원장안은 합리적인 분양가는 물론 한화건설의 새로운 주거 브랜드 '포레나'의 최신 상품이 단지 전반에 많이 적용된 단지"라고 설명했다.

포레나 수원장안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펫 프렌즈 파크'를 비롯해 2개층 규모의 커뮤니티시설 '클럽 포레나' 등의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과 미세먼지 저감 특화시스템 '포레나 블루에어시스템' 등 한화건설만의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해당지역, 22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저가매수 기회 '유니티 소프트웨어' 1위

해외주식 Click

〈2월2주차 해외주식 개인 순매수액 상위종목〉
(단위 : 달러)

순위	국가	종목명	순매수금액
1	미국	유니티 소프트웨어	1억1070만
2	미국	애플	6045만
3	미국	퀄컴	4517만
4	미국	아크노베이션 ETF	3718만
5	미국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3578만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주(2월8일~14일 기준)에 가장 많이 산 해외주식은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 기업인 유니티 소프트웨어(UNITY SOFTWARE INC)였다. 2위는 '서학개미'들의 대표적 선호주인 애플이었다. 2주차 순매수 상위 10개사에는 주로 게임, 반도체, 부동산 거래 플랫폼, 원자재,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가 자리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2월 2주차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1억 1070만달러(약 218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주가가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를 염두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50위권 밖이었던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이번주 단숨에 1위로 뛰어 올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전일 대비 0.54% 상승한 126.0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어 순매수 2위를 차지한 종목은 게임들이 선호하는 종목 중 하나인 애플(APPLE COMPUTER INC.)로 국내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6045만달러(약 664억원)였다. 애플은 최근 자율주행차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월 1주차에는 순매수 3위에 자리했지만 이번주 한 계단 올라왔다. 애플의 15일(현지시간) 주가는 전일보다 0.18% 뚝 135.37달러에 장을 마쳤다.

3위는 미국의 반도체 및 통신 장비업

체인 퀄컴(QUALCOM.INC)이 차지했다.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4517만달러(약 496억원)였다. 지난 9일(현지시간) 퀄컴은 고성능 5G 모바일 장치를 위한 차세대 '퀄컴 RF 프러트 엔드' 솔루션을 발표했다. 퀄컴은 지난주 50위권 밖이었으나 최근 호재로 3위에 안착했다. 전날 퀄컴의 주가는 1.66% 오른 147.98달러를 기록했다.

순매수 규모 4위는 성장주 상장지수펀드(ETF)인 아크노베이션 ETF(A RKK ETF)였다.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3718만달러(약 409억원)로 지난주 22위에서 다시 상위권을 탈환했다. 이 ETF는 미국 액티브 ETF 선두주자인 아크인베스트가 운용하는 것으로 게임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꾸준히 순위권에 포진했다. 해당 종목의 주가는 전일 대비 1.30% 상승한 156.58달러에 거래를 끝냈다.

5위는 오픈도어 테크놀로지(OPENDOOR TECHNOLOGIES INC)라는 미국 부동산 거래 플랫폼 기업이 차지했다. 개인이 3578만달러(약 393억원) 순매수하면서 지난주 30위에서 5위로 경종 뛰었다. /염재민 기자 yji1208@

NH투자증권, 업계 최초 ESG채권 발행

NH투자증권이 NH농협금융지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전과 추진 계획의 체계적인 실행 차원에서 1100억원 규모의 공모회사채 형태의 ESG채권을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국내 금융투자회사 중 최초로 발행하는 원화 ESG채

권이며, 녹색 사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분야 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국내 최고 수준의 신용도와 ESG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에 힘입어 최초 모집예정금액 1000억원 대비 약 6배(6200억원)에 달하는 응

찰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1100억원으로 증액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는 5년물이고, 발행금리는 1.548%다.

한편, NH농협금융은 지난 3일 친환경 금융 그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ESG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2025(ESG 전환 2025)' 비전을 선포해 ESG 경영체제로의 완전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